

#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도상 연구

황이연\*

I. 머리말
II. 관촉사상의 존명 문제
III. 관촉사상 보개의 연원 고찰
IV. ‘鷄足傳衣’와 미륵, 광종과 전륜성왕
V. 맺음말

## I. 머리말

高麗(918~1392)는 그 시작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나라의 國是로 삼은 한반도의 유일한 왕조이다. 불교국가로서의 면모는 太祖王建(877~943, 재위 918~943)이 남긴 訓要十條의 ‘첫째, 우리 국가의 대업은 필연코 여러 부처님의 호위하는 힘에 의지한 것이다’라는 언급을 통해 대표적으로 드러난다.<sup>1</sup> 건국의 공을 부처의 가피에 돌렸다는 것은 국가운영에 있어 불교의 사상과 세력, 상징성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실제로 고려의 왕들, 특히 고려전기(918~1170)의 왕들은 불교계를 활용한 정치적 목적 달성에 힘썼다.<sup>2</sup> 왕권과 불교 세력의 강한 유대는 불교

---

\* 홍익대학교

<sup>1</sup> “其一曰, 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 『高麗史』 권 2, 世家 태조 26년 하4월.

<sup>2</sup> 고려시대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며, 미술사의 연구방법론에 의한 시기 구분도 몇 갈래로 갈



도 1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고려 970년~1006년 추정, 화강암, 높이 1,812cm, 논산 관촉사(정은우 교수 제공)

의례, 사찰 창건,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나타나는데, 불교조각과 관련해서는 光宗(925~975, 재위 949~975) 재위기에 조성되기 시작한 論山 灌燭寺 石造彌勒菩薩立像을 주목할 만하다(도 1).

고려전기는 한반도의 불교조각사에 있어 양식의 지역성, 다양성, 독자성이 눈에 띄는 시기이다. 수도 개경에서 조성된 상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하나의 규범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양식의 상이 조성되는데, 그 가운데 타 시기 및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독자적인 도상과 표현이 나타난다. 18.12미터에 달하는 높이, 相好의 과감한 표현, 石造寶蓋 및 大衣를 착용한 미륵보살입상 도상 등 관촉사상은 고려전기 불교조각의 세 가지 특징을 아우르고 있으며, 조성의 시기와 주체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이 시기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미륵보살입상 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관촉사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 할 수 있는 존명 문제에 대해서는 양식과 도상적 특징을 바탕으로 미륵존상임을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관촉사상을 비롯하여 고려전기에 조성된 미륵보살입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석조보개 표현을 그 연원과 전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佛說彌勒大成佛經』(이하 『성불경』)에 등장하는 ‘鷄足傳衣’의 내용과 고려전기 미륵보살입상의 대의 착용 사이의 관계를 경전과 금석문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려전기 미륵보살입상의 도상적 특징이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종이 관촉사상을 조성한 배경에는 전륜성왕의 이미지를 차용한 고려 국왕의 정치적 영향력 과시라는 의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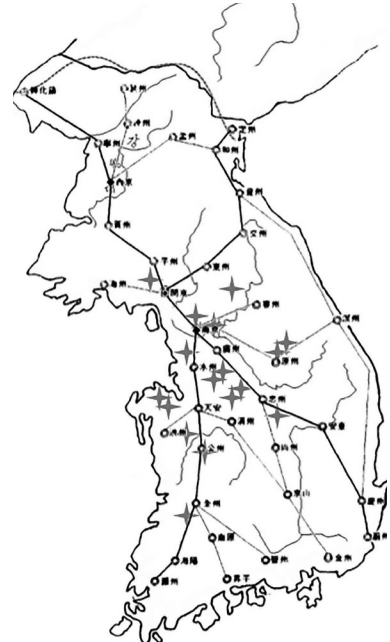
---

리는 상황이다. 다만 무신란을 분수령으로 하여 고려사회의 성격이 귀족사회에서 무신집권기 및 원 간섭기로 나뉘고 불교미술 또한 12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소위 중앙양식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의 시기 구분은 1170년(의종 24)을 기준으로 한 전·후기의 2시기로 나누고자 한다.

## II. 관촉사상의 존명 문제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여러 편 남아있는데, 이는 고려전기 석불상으로는 이례적이다(표 1). 다만 조성의 주체와 시기가 자세히 명시된 것은 조선후기의 기록인 「灌燭寺事跡碑」가 거의 유일하다.<sup>3</sup>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조성 시기가 분명히 드러나고, 고려시대의 관련 기록과 공통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광종대의 思想界 및 정치적 행보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광종이 조성한 상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높이 18.12미터에 달하는 거대하고 육중한 석상을 조성하기 위해 100여명의 장인을 파견하고 옮기는 데 1,0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는 기록은 이 상을 국왕이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sup>4</sup>

관촉사상과 같이 石柱形에 석조보개를 쓰고 대의를 걸친 新樣式의 보살상은 주로 경기·충청지역에 여러 구 조성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전기의 불교조각 중 미륵보살입상으로 판단되는 상은 총 17구이다(표



도 2 고려전기 간선로망과 미륵보살입상의 조성위치

2). 해당 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초에 정비된 주요 幹線路網 부근에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도 2).<sup>5</sup> 수도가 한반도 동남부의 경주에서 중앙의 개경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교통로가

3 영조 19년(1743)에 건립된 「灌燭寺事跡碑」는 총 1,159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성의 배경과 관련 설화, 상의 크기 및 특징, 관촉사 사명의 유래, 상이 보인 神異, 사찰 중수 관련 연혁, 頌詩, 사적비 건립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중 조성 배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광종 19년 기사년(969년)에 沙梯村의 여인이 盤藥山 서북쪽 골짜기에서 고사리를 캐는데 홀연히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려서 이윽고 나아가 보니 땅속에서 커다란 바위가 솟아 나오는 것이었다. 마음에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돌아와서 그 사위에게 말을 하니 사위가 곧바로 관아에 고하고 관아는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백관에게 명하여 회의를 하니 아뢰기를 “이는 필시 불상을 만들라는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尙醫院에 명하여 팔도에 사신을 보내 널리 불상을 만드는 장인을 구하게 하였다. 僧 慧明이 추천에 응하고 조정은 장인 백여명을 골라서 경오년(970년)에 일을 시작하여 병오년(1006년)에 일을 끝마치니 무릇 37년이 걸렸다.” 「灌燭寺事跡碑」,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4 “朝廷擢工匠百餘人 始事於庚午訖功於丙午凡三十七年也 尊像既具欲安道場 遂千餘人並力齊運” 「灌燭寺事跡碑」,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5 고려전기의 간선로망 정비에 대해서는 정요근, 「高麗前期 驛制的 整備와 22驛道」, 『韓國史論』 45 (2001), pp. 1-71

〈표 1〉 관촉사 및 석조미륵보살입상 관련 사료 목록

번호	사료명/저자	연대	주요 내용
1	崔士威墓誌銘 <sup>6</sup>	1075년 (고려 문종29)	“왕명을 받아 창립하고 고친 사찰, 관사, 궁성이 열다섯 곳이다 (중략) 시진현 경내의 포천 미륵원(日俞創立修營寺舍宮闈者一十五所也[중략]市津縣境內布川彌勒院)”
2	東文選 龍華會疏 정오(?~1318)	14세기	“아변다가 용화에서 베푼 설법의 모임에 현재의 인을 심으면 모두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거늘 (중략) 그러기에 지난 인년에 제가 이 모임을 관촉사에 주선하러 했습니다(脫阿邊多龍華會上 種現因則皆得出生[중략]而我欲陳此會於灌足寺)”
3	牧隱集 牧隱詩藁 이색(1328~1396)	1404년 (조선 태종 4)	“은진현에 관촉사가 있고 / 커다란 석상 미륵존이 있으니 / 내 나간다 내 나간다 하며 땅에서 솟았다네(市津縣中灌足寺/有大石像彌勒尊/我出我湧從地)”
4	新增東國輿地勝覽 恩津縣 佛宇條	1530년 (조선 중종 25)	“돌미륵이 있는데 높이가 54척이다(有石彌勒高五十四尺)”
5	灌燭寺事跡碑	1743년 (조선 영조 19)	“땅속에서 커다란 바위가 솟아나와 (중략) 조정에서 승 해명과 장인 백여명을 보내어 경오년(970)에 일을 시작하여 병오년(1007)에 끝마치니 무릇 37년이 걸렸다(有大石從地中聳出 [중략]僧慧明應舉朝廷擢工匠百餘人始事於庚午訖功於丙午凡三十七年也)”
6	梵宇攷 忠淸道 恩津條	1799년 (조선 정조 23)	“높이 54척의 미륵이 있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고려 광종조에 반야산 기슭에서 거대한 바위가 솟아나 승려 해명이 상을 조성하였다(有言彌勒高五十四尺 世傳高麗光宗朝 般若山麓有大石湧出僧慧明琢成佛像)”
7	1872年 地方地圖 忠淸道 恩津地圖	1872년 (조선 고종 9)	“灌燭寺-彌勒”으로 표기
8	東師列傳 제4권 自序傳條 각안(1820~1896)	1894년 (조선 고종 31)	“은진 반야산 관촉사에 석관관음불이 있다(有築路恩津般若山 灌燭寺有石像觀音佛)”
9	朝鮮佛教通史 이능화(1869~1943)	1918년	“명주사 사적기에 의하면 고승 해명과 대주 두 승려가 관촉사의 석관음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니(按明珠寺蹟 高僧慧命大珠二造灌燭寺石觀音像云)”

참조. 도 2는 이 글 p. 69의 〈부도 1〉을 轉載 후 미륵보살입상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 6 최사위(961~1041)는 고려 현종대에 太子太師(정1품)에까지 올랐던 재상으로, 특히 여러 사찰과 관사, 궁성의 중수를 맡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묘지명에 언급된 市津은 논산 은진의 옛 지명으로, 신라 경덕왕 대에 시진현으로 명명되었고, 조선 태종 6년(1406)에 德恩縣에 통합된 후 세종 원년(1419)에 恩津縣으로 개칭되었다. 최사위묘지명에 언급된 관촉사 상에 대해서는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일조각, 2013), pp. 125-126.

〈표 2〉 고려전기 미륵보살입상

번호	명칭	보관	착의	지물	높이 (cm)
1	해주 영파리 석조보살입상	보계장식	우전왕식 대의	없음	190
2	원주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보계장식	우전왕식 대의	없음	243
3	원주 봉산동 신선암 석조보살입상	없음(별실)	우전왕식 대의	없음	178
4	서울 진관동 석조보살입상	보계장식	우전왕식 대의	없음	158
5	서울 광장동 상부암 석조보살입상	없음(별실)	우전왕식 대의	없음	283
6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고관, 방형보개	편단우견식 대의	없음	390
7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고관(화불별실), 2단 방형 보개, 고관에 장 식을 꽂은 흔적	통견식 대의, 외반한 승각기, 군의	용화수 가지	1,812
8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고관, 2단 방형 보개, 머리 양쪽 에 금속제 簪	통견식 대의, 띠매듭	용화수 가지	1,020
9	당진 안국사지 석조보살입상	고관, 화불, 방형보개	확인불가	없음	491
10	예산 삼교 석조보살입상	고관, 육각형보개	변형통견식 대의, 군의	지팡이	530
11	포천 구음리 석조보살입상	당초문 고관, 화불, 방형보개	통견식 대의, 가사문, 승각기	없음	440
12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당초문 고관, 簪	통견식 대의, 화문의 승각기, 띠매듭, 군의	없음	1,230
13	안성 아양동 석조보살입상	보계장식(?) 혹은 고관, 방형보개(현재 상석)	확인불가	없음	337
14	증평 미암리사지 석조보살입상	고관, 화불	통견식 대의, 승각기, 군의	용화수 가지	260
15	증평 남하리 석조보살입상	민무늬 고관	통견식 대의, 군의	용화봉	350
16	상주 신봉리 석조보살입상	삼산관	통견식 대의, 군의	용화수 (별실)	315
17	정읍 정혜사 석조보살입상	고관	통견식 대의	없음	262

신설되었고, 교통로를 이용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虎患이나 강도로부터의 구제를 기원하며 상을 새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간선로에 驛院 기능의 사찰을 세워 통행자의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였던 까닭도 있을 것이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양식의 상이 고려전기에 대거 조성된 것은 교통의 축이 일대 변혁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석조불상의 표현이 이전 시기에 비해 세밀하지 않고, 전란 등으로 고려전기의 기록이 상당수 멸실되었으며, 미륵의 특성상 존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물이나 복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존명의 비정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 유일하게 제작 연대와 주체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관촉사 상은 존명과 관련된 논쟁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sup>7</sup> 다만 문헌자료와 관촉사의 창건을 둘러싼 광종대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촉사 상 및 유사한 도상의 존명을 미륵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표 1>에 제시된 사료를 살펴보면, 고려전에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미륵상으로 언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존명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도상적 요소, 즉 보관의 화불과 수인, 식물 가지의 표현 등 또한 고려전기 미륵존상의 표현 양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선, 미륵보살상의 보관에 나타나는 화불에 대해서는 미륵의 주요 소의경전인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이하 『상생경』)의 다음과

7 상의 규모와 독특한 표현 덕분에 관촉사 상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관촉사 상에 대한 이른 시기의 언급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關野貞, 『朝鮮美術史』(朝鮮史學會, 1932) (沈雨晟 역, 『조선미술사』, 東文選, 2003, pp. 248-249 참조).  
 黃壽永, 「高麗의 彫刻」, 『韓國藝術總覽 概觀篇』(大韓民國藝術院, 1964), pp. 152-159.  
 金理那, 「高麗時代 石造佛像 研究」, 『考古美術』 166·167 (1985. 9), pp. 57-81.  
 金吉雄, 「高麗 巨石佛 造成에 관한 考察」,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通文館, 1988), pp. 149-168.  
 崔聖銀, 「百濟地域의 後期彫刻에 대한 考察」, 『百濟의 彫刻과 美術』(公州大學校 博物館·忠清南道, 1992), pp. 211-226.  
 한편, 관촉사 상을 중점적으로 논한 대부분의 연구가 존명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었다. 관촉사 상을 미륵존상으로 간주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명대, 「실측조사를 통해 본 대조사 석미륵보살입상의 도상특징과 의의」, 『大鳥寺 石彌勒菩薩立像』(한국미술사 연구소, 1999), pp. 1-35 (문명대, 『삼매와 평담미』(예경, 2003), pp. 119-139에 재수록).  
 崔善柱, 「高麗初期 灌燭寺 石造菩薩立像에 대한 研究」, 『미술사연구』 14 (2000), pp. 3-33.  
 孫永文, 「高麗時代 龍華手印 彌勒圖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52 (2006. 12), pp. 117-152.  
 최성은, 「미륵존상 조성의 성행: 마에보살반가상과 석조보살입상」,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일조각, 2013), pp. 118-148.  
 관음존상으로 간주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曹宰榮, 「灌燭寺·大鳥寺 石造菩薩立像의 尊名研究 : 高麗 前期 佛教界의 흐름과 관련하여」, 『佛敎考古學』 3 (2003), pp. 41-61.  
 曹宰榮, 「高麗前期 石造觀音菩薩像 圖像研究」, 『佛敎考古學』 5 (2005), pp. 79-106.  
 관음존상의 양식으로 제작되었으나 미륵으로 불리면서 도상과 존명의 불일치가 생겨났다는 입장으로는 신은영,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의 圖像-尊名불일치 문제와 ‘世間」, 『史學研究』 117 (2015. 3), pp. 123-161을 참고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 때 미륵보살이 도솔천 칠보대에 있는 마니전의 사자좌에 홀연히 화생하여, 연꽃 위에 가부좌하고 앉을 것이다. (중략) 머리에는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여의주와 백천만억 견속가 보석으로 만든 하늘 관을 쓰고 있을 것이다. 보배 관에서는 백만억 미묘한 빛이 흘러나오고, 날날의 빛깔 속에 무량 백천의 화현불이 계신데, 많은 화현보살들이 화현불을 각각 모시고 있을 것이다.”<sup>8</sup>

경전상의 언급 외에도, 미륵보살상의 보관 및 발계에 화불이 나타나는 사례는 敦煌 莫高窟 제 275호굴의 본존이나 雲岡石窟 제 7굴 및 11굴의 미륵보살좌상, 경주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 다수 존재한다. 미륵의 도상이 후에 관음의 도상으로 轉用된 예는 다양하다. 관음보살의 대표적인 지물이라 할 수 있는 정병 또한 이미 간다라나 쿠산조의 미륵보살상에 먼저 보이는 요소인데, 인도에서는 이러한 도상이 꾸준히 발전하여 굽타왕조나 팔라왕조대에까지 미륵과 정병의 조합이 나타난다.<sup>9</sup> 수인의 경우, 관촉사상은 양손의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어 아미타중품중생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른손으로는 식물 가지를 잡고 있으며, 일반적인 아미타인과는 손등의 방향이 다르므로 이를 관음도상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손에 쥐 식물 가지 또한 미륵의 상징인 龍華樹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0</sup> 이와 같은 도상의 전용은 미륵과 관음 모두 매우 대중성이 높은 존상이라는 데 기인한다. 후대에 관촉사상이 관음상으로 불리게 된 것도 불교의 위축과 함께 신앙의 대상이 단순화되면서 생긴 전칭 혹은 착오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료를 근거로 관촉사 상을 비롯한 고려전기의 거석불을 미륵존상으로 간주할 경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 상들이 독존의 미륵보살입상으로 야외에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간다라 상과 같은 이른 시기의 미륵보살상을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불교미술에서 미륵존상의 표현은 교각상·의좌상·반가상 등 좌상으로 표현되어 왔다. 한반도에서 제작된 미륵보살존상 중 입상으로 제작된 사례는 고려전기의 17구를 제외하면 719년 조성의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조선후기의 괘불 2구뿐이다.<sup>11</sup> 중국의 경우 唐 820년에 조성된 河南省 滎陽 출토 大海寺 석조미륵보살입

<sup>8</sup> “時兜率陀天七寶臺內 摩尼殿上師子床座 忽然化生 於蓮華上結加趺坐 (중략) 百千萬億甄叔迦寶以嚴天冠 其天寶冠有百萬億色 一一色中有無量百千化佛 諸化菩薩以爲侍者”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T0452). 우리말 번역은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https://abc.dongguk.edu/ebti/c2/sub1.jsp>)에서轉載.

<sup>9</sup> 宮治昭, 『佛像學入門』, (春秋社, 2013), pp. 75-78.

<sup>10</sup> 미륵도상에 나타나는 용화수의 표현에 대해서는 孫永文, 앞의 논문 참조.

<sup>11</sup> 감산사 상의 경우 金志誠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아미타상과 미륵상을 1구씩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대형의 독존

상의 사례가 있다(도 3). 이 상 또한 높이 233센티미터의 큰 상으로 조성되었으나, 1976년 발견 당시 비슷한 크기의 辯積菩薩立像, 金髻菩薩立像 등 42건의 석조상과 함께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보살들과 함께 배례 대상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2</sup> 34.5미터의 莫高窟 제96굴 본존이나 7.55미터의 天龍山石窟 제9굴 본존, 71미터의 樂山大佛 등 중국의 미륵존상이 전통적으로 매우 거대한 독존으로 조성되었고, 대부분이 좌상인 점을 감안하면 대해사의 미륵보살입상은 예외적인 예로 볼 수 있다.<sup>13</sup> 일본의 경우 奈良 興福寺에 봉안되었던 보스텐미술관소장의 1189년작 목조미륵보살입상을 필두로 鎌倉時代에 조성된 사례가 남아있으나, 대부분이 2미터를 넘지 않으며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여타 존상들과 함께 봉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관촉사상을 필두로 한 고려전기 미륵보살입상이 타 시기 및 지역의 상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은 미륵보살입상이라는 도상을 거대한 독존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이 시기 미륵보살입상의 높이는 대부분 2미터를 넘으며 크기는 18미터에 달한다. 상의 크기는 상대적이지 표이기 때문에 도상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거대하다는 특징은 경전의 언급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불에 관한 경전의 기록을 보면 『성불경』에는 미륵의 신장이 32장, 『佛說彌勒下生成佛經』에는 1,000尺이라 되어 있다.<sup>14</sup> 隋唐 이전의 1丈이 대략 성인 남자 1인의 신장에 해



도 3 大海寺 석조미륵보살입상, 唐 820년, 석회암, 높이 233cm, 중국 鄭州博物館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p. 58, 圖27

상으로 제작된 고려전기의 예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1627년작 <무량사 괘불>과 1673년작 <장곡사 괘불>은 보관과 천의, 영락과 완천 등으로 장엄된 입상이며 미륵의 존명이 기입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장엄된 노사나불 존상이 다수 제작된 『法華經』기반의 조선시대 불교미술과 맥이 닿아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보살상으로 제작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상기 괘불의 도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명희, 『朝鮮 後期 掛佛幀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42·243 (2004. 3), pp. 186-189 참조.

<sup>12</sup> 東京国立博物館·NHK,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NHK, 1998), p. 56.

<sup>13</sup> 중국에는 북위대부터 당대에 걸쳐 조성된 17구의 미륵대불이 현존하는데, 모두가 의좌상 혹은 반가상의 좌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미륵보살입상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중국의 미륵대불에 대해서는 龙忠, 『弥勒大佛造型特征研究』, 『遗产与保护研究』 2017年 05期, pp. 161-163 참조.

<sup>14</sup> “身長釋迦牟尼佛八十肘(三十二丈)” 『佛說彌勒大成佛經』(T0456); “身長千尺 胸廣三十丈 面長十二丈四尺” 『佛說

당되었고 『성불경』은 5세기에 한역되었으므로 경전에서 설하는 미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고려전기 미륵보살입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17구 중 7구의 상에 석조 보개의 표현이 나타나며, 확인하기 어려운 예를 제외하면 모두 보살의 복식이 아닌 여래의 대의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개와 대의 착용에 대해서는 각각 Ⅲ장과 Ⅳ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간선로망 부근에 조성된 독존의 거대 미륵보살입상이라는 도상, 보살의 대의 착용, 석조보개와 고관의 표현, 손에 쥐는 가지가 긴 용화수와 같은 관촉사상의 양식은 이 시기 한 반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경전에 미륵이 거대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은 미륵이 유포피아의 상징이었음을 의미한다.<sup>15</sup> 고려전기의 미륵보살상이 기존의 상과는 맥락을 달리하며 새로 등장한 초월적 존재였으며, 그렇기에 새로운 도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 Ⅲ. 관촉사상 보개의 연원 고찰

고려전기 석조불상 양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개의 표현이다.<sup>16</sup> 현존하는 보개 표현 석불은 총 81구이고, 그 중 약 66%인 54구의 상이 고려시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7</sup> 방형 내지 다각형, 원형의 석판을 보관 혹은 불정 위에 올린 고려시대 이래의 석조보개는 독특한 표현으로 인해 기존의 연구에서 빠짐없이 언급되어 왔다. 이 중 관촉사상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광종이 재위기간 중에 建元稱帝한 사실과 보개의 형태를 연관지어 면류관형 보개로 파악한 연구성과가 가장 주목받아왔다.<sup>18</sup> 이는 보살상의 정수리에 올린 수직의 석재와 수평의 석재, 그리고 최상부의 장식을 모두 하나의 보관으로 보는 시각이며, 이렇게 간주할 경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

彌勒下生成佛經』(T0454).

<sup>15</sup> 宮治昭, 앞의 책, p. 87.

<sup>16</sup> 불보살의 두정 위에 나타나는 장치는 아함경을 필두로 여러 경전에서 ‘傘蓋’, ‘華蓋’, ‘寶蓋’, ‘天蓋’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총칭할 때에는 ‘산개류’로, 傘의 형태를 띤 것은 ‘산개’로, 화려한 垂飾 등으로 장식된 것은 ‘화개로’, 고려전기 보살상에 보이는 사례는 ‘(석조)보개로’ 부르고자 한다.

<sup>17</sup> 정성권, 『태봉과 고려 석조미술로 보는 역사』(학연문화사, 2015), pp. 277-279.

<sup>18</sup> 崔善柱, 앞의 글; 丁晟權, 『安城 梅山里 石佛 立像 研究 - 高麗 光宗代 造成說을 제기하며』, 『文化史學』 17 (2002. 6), pp. 287-312; 同著, 『寶蓋 착용 석불 연구: 寶蓋를 중심으로』, 『文化史學』 21 (2004. 6), pp. 719-739; 同著, 『高麗 光宗代 石佛의 특성과 영향』, 『文化史學』 27 (2007. 6), pp. 579-600; 陳政煥, 『高麗前期 新樣式 石佛의 展開와 造成 背景』, 『美術史學研究』 287 (2015. 9), pp. 5-27 등을 참조.

려의 독창적인 표현이 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관촉사상의 보개를 통형의 보관 위에 올려진 이중 보개의 구조로 보고자 한다. 이중보개는 중국에서부터 꾸준히 표현되어 온 구조물이며, 이를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변형시킨 것이 관촉사상의 보관에 올려진 보개라는 시각이다.

보개는 佛頂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정, 즉 肉髻相은 여래의 32상 중 하나로, 선형으로 나타나게 된 상서로운 상호라고 전해진다.<sup>19</sup> 경전에는 불정과 산개류를 관련지은 내용이 여럿 등장한다. 『大方廣佛華嚴經』에서 위덕주 태자를 묘사하면서는 육계는 ‘마치 천개와 같다고 되어 있고, 『不空縹索神變真言經』에는 ‘정수리에서 갖가지 색깔의 광염류가 변하여 산개가 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五佛頂三昧陀羅尼經』에는 불정에서 삼천대천세계의 허공 끝과 합하여 하나의 일산으로 덮는다는 언급이 있다.<sup>20</sup> 시대와 지역에 따라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정을 보호하는 산개류가 다수 조성된 이유이다.



도 4 보살좌상, 2-3세기, 편암, 파키스탄 페샤와르박물관(필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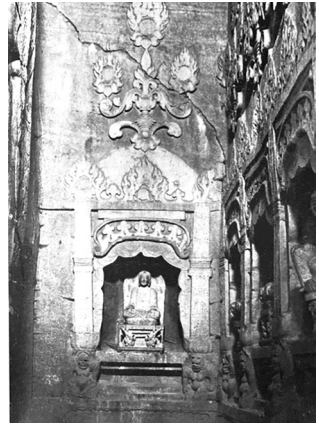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산개류는 부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나타났다. 고대 인도에서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 가장 높은 지위의 인물이 그 나무의 기둥에 기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전통은 간다라에서 다수 제작된 樹下觀耕 도상의 상에 여실히 드러난다(도 4). 이는 傘蓋(Chhatra)로 변화되어 부처의 상징이 되었다.<sup>21</sup> 인도 사르나트박물관에는 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발라 비구 봉헌불상의 산개가 전해지는데, 대를 꽃은 흔적이 남아 있어 간다라에서 대형 불상에 실제로 산개를 함께 제작하여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도 5).

한편, 중국에서 나타나는 산개류의 전개는 별개의 연원을 지니고 있다. 『後漢書』의 延熹9年(166) 7월

<sup>19</sup> “見有忘者施其憶念 自持五戒轉以教人 修集悲心能大法施 以是因緣得肉髻相” 『大方便佛報恩經』卷7 (T0156).

<sup>20</sup> “頂有肉髻 猶如天蓋” 『大方廣佛華嚴經』(T0293); “爾時釋迦牟尼如來應正等覺 則入不空無垢清淨光三摩地 頂放種種色光焰輪 變成傘蓋其蓋復放種種色光遍滿虛空” 『不空縹索神變真言經』(T1092); “現一切佛加被白傘蓋頂呢王身 於是之時則當頂上 遍三千大千世界虛空際合現一蓋” 『五佛頂三昧陀羅尼經』(T0952).

<sup>21</sup> 『仏教美術辭典』(東京書籍, 2002), p. 815.



(左)도 5 발라 비구 봉헌보살상 산개, 쿠샨 1세기, 지름 304cm, 인도 사르나트박물관(Beyond the Taj: Architectural Traditions and Landscape Experience in South Asia, Cornell University Library Digital Collections)

(中)도 6 금동삼존불상, 後趙 5세기, 금동, 높이 22cm, 중국 河北博物院『고대불교조각대전』, p. 87, 도32)

(右)도 7 北響堂山石窟의 北洞 主室 우측 벽, 北齊(河北磁縣·河南武安: 響堂山石窟: 河北河南省境における北齊時代の石窟寺院, 圖版57)

조에는 “濯龍宮을 짓고 華蓋를 설치하여 浮圖(佛)와 노자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언급이 있다.<sup>22</sup> 東漢代 151년에 조성된 武氏祠画像石에도 周公의 보좌를 받는 成王의 머리 위에 주공이 든 화개의 표현이 보이는데, 인도의 산개와는 달리 垂飾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5세기 후조대에 제작된 河北博物院 소장 금동삼존불은 산개의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 수식의 흔적이 보인다(도 6). 즉, 중국 불상의 산개류 표현은 전통적으로 존귀한 이를 모실 때 설치한 화개에 연원이 있으며, 이것이 불교 전통과 결합한 것이다.<sup>24</sup>

중국의 화개는 불교미술의 발전과 함께 매우 화려한 양식으로 변주되며, 이는 산개류 뿐 아니라 불감이나 牀帳 등 불상을 봉안하고 불정의 상부에 장식된 구조물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sup>25</sup> 北齊代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허베이성 北響堂山石窟의 北洞 主室은 이와 같은 경향을 잘 보여준다(도 7). 부처를 모신 공간의 최상부가 화염으로 장식되고 그 아래로 다양한 장식이 보이는 표현은 西安 寶慶寺 불감 부조(8세기)나 둔황 모가오굴 출토 〈彌勒下生經變相圖〉 등 당대

<sup>22</sup> “庚午 祠黃老於濯龍宮”; “考濯龍之宮 設華蓋以祠浮圖老子” 『後漢書』卷7 桓帝紀 延熹九年七月條.

<sup>23</sup> 小杉一雄, 『中国仏教美術史の研究』(新樹社, 1980), pp. 76-82. 무씨사화상석의 화개 표현은 이 책 p. 78의 도판 참조.

<sup>24</sup> 仲嶺真信, 「一いわゆる天蓋についての再検討—仏教美術における華蓋を中心にして—」, 『芸術学論叢』17 (2007), p. 4.

<sup>25</sup> 불감, 상장, 천개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상부표현에 대해서는 小杉一雄, 위의 책, pp. 125-151 참조.



도8 삼존불감, 唐 8세기, 일본 東京國立博物館(필자촬영)



도9 法隆寺 夢殿의 지붕의 화염보주, 鎌倉時代, 일본 奈良 法隆寺(필자촬영)

미술에도 이어지며, 일본 나라의 法隆寺 夢殿의 지붕에서도 볼 수 있듯 건축으로도 구현된다(도 8, 9).<sup>26</sup>

우리나라에서 산개류의 표현이 나타나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예는 7세기에 제작된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김제 대목리출토 금동관불이며, 비슷한 시기의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에도 영락으로 장식된 화개가 표현되어 있다. 통일신라대의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북면의 여래좌상이나 9세기의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관불에도 부처의 두정 위에 화개가 나타난다.

산개류의 표현이 대부분 마애상이나 부조 등 평면에 조성된 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환조상에서는 이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래 보개는 불정 위에 떠있는 구조물이다. 평면으로는 이를 표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환조상에 산개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을 모신 전각의 지붕에서 늘어뜨리거나 불정 위에 보개를 얹어야 한다. 전자는 달집으로 귀결되고, 후자는 관촉사상 등의 보개로 표현되는 것이다.

후자의 사례는 드물게나마 통일신라대부터 거친 형태로 등장한다.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은 비신과 같은 석재 위에 설법인을 한 여래상이 고부조로 새겨졌고 그 위에 마치 지붕과 같은 옥개석이 얹혀 있다. 이 상은 승상이기는 하지만 810년이라는 제작연대가 있는 창녕 인양사조성비와 형태가 유사하여 9세기로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sup>27</sup> 또한, 불비상 전면의 삼층석탑은 상층기단에 팔부신중이 표현되어 있고 기단석 위의 탑신과

<sup>26</sup> 호류지 유메도노는 739년에 건립되었지만, 지붕 구조는 鎌倉代에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町田 甲一, 『大和古寺巡歴』(講談社学術文庫, 1989), p.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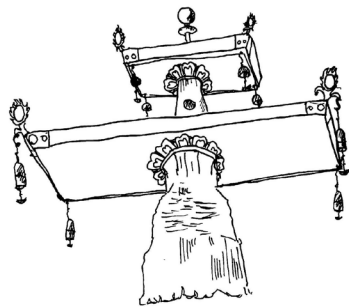
<sup>27</sup> 정성권, 앞의 책, p. 283.

임이 얇은 층을 이루고 있어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같은 통일신라 후기 석탑임을 알 수 있다(도 10). 금둔사상과 삼층석탑은 가파른 산기슭의 좁은 부지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 탑 뒤에 금당을 짓고 상을 모실만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두정 위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성을 야기하였고, 이를 비신의 형태와 결합시킨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공간적·구조적 제약은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이 석조보개를 착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18미터가 넘는 환조의 독존을 전각이나 감실에 봉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외공간에 거대한 독존상을 조성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앙식의 탄생은 필연적이었다. 관촉사상의 보개는 방형의 화강암제 석판 두 장을 통형 석재에 올리고 최상부에 보주로 장식하였다. 방형 석판의 네 귀퉁이에는 화염보주가 솟아오르고, 화염 받침대의 금속제 고리에는 풍탁이 달려 있다(도 11). (도 9)의 호류지 유메도노 지붕이나 (도 12)의 구례 연곡사 동승탑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최상부 보주의 받침대에 네 점의 화염장식판을 연결하여 화염보주로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둔황 모가오굴 출토 〈千手千眼觀世音菩薩圖〉 등 당대 회화에 다수 등장하는 이중 보개 표현과 유사하다(도 13). 거대한 화강암제 상인만큼, 상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곡면이나 경사면의 표현 대신 수평의 석판을 두 장 올렸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상의 재



도 10 금둔사지 석조불비상과 삼층석탑, 통일신라 후기, 화강암, 순천 금둔사(필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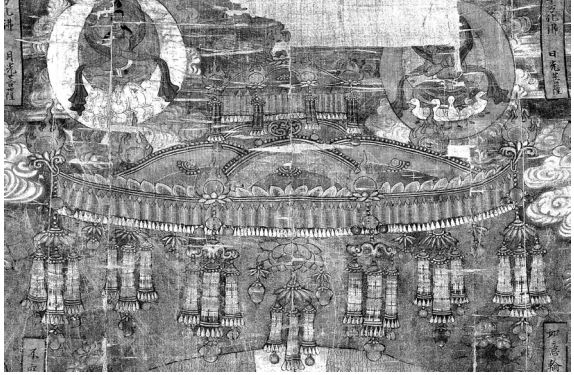


도 11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보관과 보개(필자작성)

<sup>28</sup> 창녕 인양사조성비는 승상이기 때문에 불보살상의 보개와 연결짓기 어렵고,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또한 불정 위의 보개라기보다는 불비상의 구조적 특성으로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두 상 모두 상부가 옥개석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에 본고에서 다루는 관촉사상 류의 석조보개 양식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국립청주박물관 반가사유비상 등의 불비상에 표현된 옥개석 또한 불보살의 두정 위에 표현된 구조물이라는 넓은 범주에서는 일맥상 통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北齊에서 다수 조성된 사유상에 보이는 용화수 등에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본다. 산개류와 나무 표현, 단집, 석굴의 천정 구조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이러한 '불정 위의 구조물'은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방대하기에 생략하지만, 보개가 이 맥락상의 한 가지라는 점은 강조하고 싶다.



(左)도 12 구례 연곡사 동승탑(부분), 통일신라, 화강암, 구례 연곡사(필자촬영)



(右)도 13 <千手千眼觀世音菩薩圖>(부분), 唐 8세기, 견본채색, 원본크기 79.3×62cm, 영국 British Museum(『西域绘画: 佛·菩薩』, p. 36)

질과 크기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제약이 중국 및 통일신라의 불교미술에 표현된 화개와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즉, 관촉사 상의 이중보개는 화강암제 거석불을 조성하면서 탄생한 ‘화개의 변안’이라 할 수 있다. 관촉사상과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이외의 고려전기 불교 조각에서 화염보주와 이중보개, 수식의 표현 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타 상들이 이중보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관촉사상을 모방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IV. ‘鷄足傳衣’와 미륵, 광종과 전문성왕

##### 1. 『佛說彌勒大成佛經』과 보살상의 大衣 표현

앞서 언급하였듯, 고려전기 미륵보살입상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을 제외하면 모두 보살상의 천의가 아닌 여래의 대의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섭이 석가모니로부터 받은 가사를 미륵에게 전달하는 ‘鷄足傳衣’의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9</sup> 소위 ‘미륵삼부경’ 중 미륵하생

<sup>29</sup> 『성불경』에는 가섭이 멸진정에 들어 미륵을 기다리고 있던 장소를 鷄足山이 아닌 狼迹山이라 전하고 있다. 계족산과 낭적산은 인도 동부 비하르주의 Kukkuṭapāda-giri의 異譯으로 같은 곳을 칭한다(智冠 編, 『伽山佛教大辭林』 1,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8), pp. 884-885). 소위 삼부경을 비롯하여 미륵의 소의경전에는 이 지명이 등장하지 않지만 『經律異相』, 『大唐西域記』, 『續高僧傳』, 『三彌勒經疏』 등 후대의 기록에는 모두 이 내용을 언급하며 낭적산 대신 계족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려시대 금석문에도 모두 계족산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으

의 내용을 담은 『성불경』과 『佛說彌勒下生經』(이하 『하생경』) 모두 이 내용을 전하고 있다.<sup>30</sup> 하지만 전자가 후자에 비해 이를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 마하가섭이 곧 멸진정으로부터 깨어나 옷을 바로 하고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는 왼쪽 다리를 세워 꿇어 앉은 뒤 합장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사를 미륵부처님께 올리며 이렇게 여쭙 것이다.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 여래, 아라한 등정각께서 열반에 드실 적에 이 가사를 저에게 주시면서 미륵부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략) “또 이 경의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옷으로써 믿게 하는 경이다.’”<sup>31</sup>

인용구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 미륵은 석가의 옷을 전달받으면서 여래로서의 정체성이 입증되었다. 미래불의 증표라 할 수 있는 석가의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 마하가섭은 열반에 들지도 못한 채 미륵의 출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고려전기 미륵보살입상은 이를 기반으로 보관을 착용한 보살로서의 미륵이 석가불의 가사를 착용하여 미래불로서의 미륵으로 성도하는 극적인 순간을 도상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경전상에는 미륵이 석가의 가사를 받아 착용하였다는 언급은 없고, 또 세 번째 설법을 마치고 가섭으로부터 가사를 받은 시점은 이미 성도한 다음이기 때문에 보살의 형상일 수 없다. 그러나 도솔천에서 지금 막 중생 구제를 위해 내려온 미륵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래정보다는 보살의 형상이 더 효과적이기에 대의를 걸친 보살의 모습으로 표현됐을 것이다. ‘여래의 옷’과 ‘보살’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두 요소를 함께 표현함으로써 미륵존상의 정체성을 더욱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sup>32</sup>

‘부처의 복식이 표현된 보살상’은 관촉사 상 등 거석불 외에도 고려전기에 제작된 사례가 다수 있는데, 그 중 해주 영파리 석조보살입상을 필두로 하는 5점의 석조보살입상을 주목할 만하다(표 2의 1~5번 참조). 모두 소위 優填王式으로 불리는 Y자 주름의 통견 대의를 착용한 모습이

---

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鷄足傳衣’로 표현하고자 한다.

<sup>30</sup> 본고에서는 미륵삼부경 중 『하생경』을 竺法護 역으로 알려진 『佛說彌勒下生經』(K-197, T0453)으로 간주하였다. 비교를 위해 鳩摩羅什 역의 『佛說彌勒下生成佛經』(K-198, T0454)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경명을 그대로 표시하였다.

<sup>31</sup> “摩訶迦葉即從滅盡定覺 齊整衣服偏袒右肩 右膝著地長跪合掌 持釋迦牟尼佛僧迦梨 授與彌勒而作是言 大師釋迦牟尼多陀阿伽度阿羅訶三藐三佛陀 臨涅槃時以此法衣付囑於我 令奉世尊 (중략) 亦名釋迦牟尼佛以衣爲信經” (굵은 글씨는 필자가 표시함) 『佛說彌勒大成佛經』(T0456).

<sup>32</sup> 황이연, 「고려 전기 보살상 연구」(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2), p. 97.

다.<sup>33</sup> 해주 영파리 석조보살입상은 일제시대 촬영된 유리관판 사진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어, 현존 여부나 크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도 14). 유사한 양식의 5구 중에서는 개경의 지근거리에 조성된 영파리 상의 제작연대가 가장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계장식 표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영파리와 매지리, 진관동 상에는 보관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대신 보계장식이 나타나는데, 영파리 상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매지리 상과 진관동 상에서는 도식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이 계통의 상보다 후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 매산리 상과 아양동 상(표 2의 6, 13번)에서 위로 빗어 올린 보발인 것처럼 변형된다(표 3). 보발을 묶어올린 자리에 주로 花紋의 형태



도 14 해주 영파리 석조보살입상, 고려전기(『유리관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p. 201)

〈표 3〉 고려전기 석조보살입상에 보이는 보계장식 표현의 변화(필자촬영)

해주 영파리 상	서울 진관동 상	원주 매지리 상	안성 매산리 상	안성 아양동 상

<sup>33</sup> 본고에서 언급하는 優填王式, 즉 優填王思慕像식 대의는 985년작 일본 京都 清涼寺의 석가불입상을 대표로 하는, 중앙아시아 유래의 Y자형 옷주름이 표현된 석가불입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양식의 불상이 세이료지상 이전에도 동아시아 전역에서 다수 조성되고, 그 중 우전왕 혹은 梅檀瑞像 등의 기록이 전해지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세이료지상에서 발견된 전단서상 관련 기록만을 근거로 Y자형 옷주름을 우전왕식 대의라고 통칭하는 데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밀도의 독특한 옷주름 표현은 호탄 등 중앙아시아 유래의 표현임은 확실하고, 玄奘의 『大唐西域記』에 전하는 ‘사람들이 금박을 붙이면 소원을 들어주는 코삼비국 유래의 우전왕상이 호탄 라악 사원 지에 남아 있는 소조불입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이 이 상의 모본을 645년에 가지고 귀국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중앙아시아 유래의 고밀도 옷주름과 우전왕상 도상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현장이 언급한 우전왕상과 라악 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영애, 『優填王式 불입상』의 형성·복제 그리고 확산, 『美術史論壇』 34 (2012. 6), pp. 7-35 참조). 이에 본고에서는 ‘우전왕식 대의’라는 용어를 석가상의 도상적 특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양식을 묘사할 때 그 시조가 되는 작품이 아닌, 비교적 후대에 조성된 유일하게 현존하는 사례를 가지고 명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더 엄밀하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로 나타나는 보계장식은 당대에 크게 유행하였고, 통일신라에서도 안압지 출토 금동아미타삼존  
 판불좌상을 비롯한 여러 상에 나타나는 양식이다. 이와 같은 보계장식은 영파리 상이 고려 초기  
 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전왕식 착의법의 보살상 모두가 왼손으로 대의 자락을 쥐  
 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데, 이 또한 석굴암의 11면 관음보살입상 등에서 볼 수 있듯 전통적 양식  
 이다. 따라서 영파리 보살입상 등 우전왕식 착의법의 보살입상은 고려 초기부터 유행한 미륵보살  
 입상의 양식으로 생각된다.

여래형이기는 하나 미륵이 우전왕상 양식으로 표현된 사례는 5세기 중국에서도 보인다. 메  
 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486년 제작의 미륵불입상(도 15)이라거나 큐슈국립박물관 소장의 443년  
 제작 미륵불입상은 모두 북위대의 우전왕식 불입상인데, 모두 명문에 의해 미륵불입이 확인되었  
 다. 존상의 세분화·다양화가 나타나기 전인 5세기의 발원자들이 석가여래상으로부터 미륵의 도  
 상을 빌려 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며, 우전왕식 불상  
 이 모두 석가모니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sup>34</sup> 유사 관계 설  
 정과 순환 이론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역사적 인물로서의  
 석가가 전생에는 도솔천의 주인으로 있다가 부처로 이 땅에  
 내려왔으며 미륵은 그러한 순환을 완전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여겼으리라는 의견도 있다.<sup>35</sup>

통일신라대에 여래입상의 모티프로 자주 차용되었던 점  
 이나 985년 제작 일본 清涼寺 목조여래입상의 복장 기록을 감  
 안해 보면, 10세기의 고려인들 또한 우전왕식의 착의법을 여  
 래의 도상으로 간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10세기에 조성  
 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 죽산리 봉업사지 석불입상이 수인  
 을 제외하면 세이로지상과 거의 흡사하게 제작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  
 상의 착의법, 즉 통견식 대의에 비스듬히 보이는 승각기가 화  
 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아래 띠매듭이 있으며 밑에는 균의  
 를 받쳐 입은 양식이 황해남도 장연군 학현리의 석조여래입상



도 15 금동미륵불입상, 北魏 486년,  
 금동, 높이 140.3cm, 미국  
 Metropolitan Museum of Art(『고  
 대불교조각대전』, p. 91, 도 34)

<sup>34</sup> Martha Carter, "The Mystery of the Udayana Buddha", *Annali*, Supplemento no. 64, Vol. 50 (1990), p. 22.

<sup>35</sup> Helmut Brinker, *Secrets of the Sacred: Empowering Buddhist Images in Clear, in Code, and in Cache*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2011), pp. 22-23.



(左)도 16 소래산 마에보살입상(도면), 고려전기, 화강암, 높이 1,230cm, 시흥 소래산(문화재안내판 촬영)  
 (右)도 17 장연군 학현리 석조불입상, 고려전기(『우리전반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p. 199)

과 거의 동일하여 참고할 만하다(도 16, 17). 보살상에 여래의 복식을 표현한 것은 그 상이 일반적인 보살이 아닌 미래불, 즉 미륵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2. 고려전기 국왕의 전륜성왕 의식과 ‘계족전’의

계족산에서 미륵을 기다리는 가섭의 이야기는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전기에 걸쳐 몇몇 금석문에 남아 있어 동시대인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sup>36</sup> 총 7건의 관련 금석문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관촉사상의 조성과 비슷한 시기의 기록인 智谷寺眞觀禪師碑이다. 이 비의 비문은 현재 서울대학교 소장 탁본과 『釋苑辭林』의 수록본으로만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비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981년(경종 6)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에는 “왕(경종)이 (진관선사의 부도에서 일어난 神異에) 크게 감동하고 즉시 墨林인 臥錦之徒에게 명하여 ‘가섭존자가 계족산에

<sup>36</sup> 계족산을 언급하는 금석문 중 현존하는 사례는 813년(신라 헌덕왕 5) 제작의 단속사신행선사비, 890년(신라 진성 여왕 4) 이후 제작의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944년(고려 혜종 1) 제작의 오룡사법경대사비, 946년(정종 1) 제작의 무위사선각대사편광탑비, 954년(광종 5) 제작의 태자사낭공대사비, 958년(광종 9) 제작의 옥룡사동진대사비, 981년(경종 6) 제작의 지곡사진관선사비 등 7건이다.

서 옷을 전한 것(鷄足傳衣)을 노래지어 나의 徽猷를 나타내게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sup>37</sup> ‘휘유란 왕이 훌륭한 정책으로 좋은 정치를 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족전의’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 당시 통치자의 정치적 과시 수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륵불과는 불가분의 관계인 전륜성왕의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성불경』은 총 7,554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총 3,403자인 『하생경』이나 총 2,971자인 『불설미륵하생성불경』보다 분량에 있어 크게 앞선다.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은 나머지 두

경과 대동소이하지만 서술 과정에서의 상세함이나 그로 인한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는 편이다. 앞서 언급한 ‘계족전의’ 외에도 『성불경』에서 두드러지는 요소는 전륜성왕인 穰法(穰法)의 존재이다. 『성불경』에는 양거왕이 바라문인 미륵에게 각종 보배를 바치고, 이를 여러 바라문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저절로 神異가 일어나 보배가 산산조각이 나며, 조각난 보배의 덧없음을 보고 無常을 깨달은 미륵이 출가를 결심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는 여타 미륵하생 관련 경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sup>38</sup> 결과적으로 미륵불의 성도를 촉발한 양거왕이 후에 출가하여 미륵불에게 귀의하는 장면도 『성불경』은 매우 자세하게 서술한다. 영국 박물관 소장의 둔항 모가오굴 출토 9세기 <彌勒下生經變相圖>에는 전륜성왕인 양거왕과 그 왕비가 출가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도 18). 관촉사 상을 조성한 광중, 그리고 ‘계족전의’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 스스로의 휘유를 드러내고자 했던 경중은 미륵의 성도를 이끌어내는 전륜성왕에 스스로를 투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위정자의 전륜성왕 관념 표명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眞興王(526~576, 재위 540~576)은 장자를 銅輪, 차자를 舍輪 혹은 鐵輪이라 불렀는



도 18 <彌勒下生經變相圖>(부분), 唐末-五代初(9-10세기), 견본채색, 원본크기 139×116cm, 영국 British Museum(©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sup>37</sup> “皇情尋時 命墨林臥錦之徒 僉其著述歌 雞足傳衣之者 顯我徽猷”『智谷寺眞觀禪師碑』, 한국금석문중합영상정보 시스템(<http://gsm.nricp.go.kr>).

<sup>38</sup> “時, 穰法王共諸大臣, 國土, 人民, 持七寶臺, 有千寶帳及千寶軒, 千億寶鈴, 千億寶幡, 寶器千口, 寶甕千口, 奉上彌勒. 彌勒受已施諸婆羅門婆羅門受已即便毀壞, 各共分之. 諸婆羅門觀見彌勒能作大施, 生大奇特心. 彌勒菩薩見此寶臺, 須臾無常, 知有爲法皆悉磨滅, 修無常想, 讚過去佛清涼甘露無常之偈: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 說此偈已, 出家學道, 坐於金剛莊嚴道場龍花菩提樹下”『佛說彌勒大成佛經』(T0456).

데, 이는 전륜성왕의 輪寶를 뜻한다.<sup>39</sup> 전륜성왕은 正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그 땅에는 미륵이 출현하여 치세를 돕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도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정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세력을 사전에 철저히 제압해야 한다. 정법의 흥포를 목적으로 정복전쟁을 감행하는 군주는 석가불 재세의 범비사라왕이나 후대의 아쇼카왕에서 볼 수 있듯 불교의 성립 시기부터 존재하는 개념이었으며, 진흥왕의 경우에도 정복전쟁을 통해 불국토를 확장시켜나가는 전륜성왕, 그 중에서도 아쇼카왕을 의식한 행보를 보인다.<sup>40</sup> 아육왕탑의 고사를 듣고 發心하여 7층목탑을 세웠다고 하는 고구려의 聖王에 대한 기록이나, 백제 무왕이 미륵사의 창건에 심혈을 기울이고 법왕이 살생을 금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삼국시대부터 전륜성왕에 대한 인식은 뿌리 깊었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고려전기의 군주들 또한 이와 같은 인식을 잇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글머리에서 언급하였듯 고려는 불교를 국시로 내세우며 건국된 한반도의 유일한 왕조였고, 국왕과 불교계의 인연도 각별하였다. 이는 건국 이전의 王建의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왕건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명성 높은 승려와 적극적으로 결연하고 중국 유학승의 귀국길을 책임지는 등 불교계 인사와의 교류에 공을 들였다. 915년(신라 신덕왕 4), 郎空大師 行寂을 만나기 위해 본인이 머물고 있었던 경주 實際寺를 禪房으로 만들어 헌납하였고, 그 해 15세로 수계를 한 法印國師 坦文이 뛰어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別和尚이라는 칭호를 내려 줄 정도였다.<sup>42</sup> 한편으로 903년(신라 효공왕 7) 나주를 정벌한 이후 서남해안의 해상권은 왕건의 통제 하에 있었고, 중국에 유학한 승려들은 대부분 왕건의 도움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sup>43</sup> 선진 문물과 지식을 접하고 돌아온 젊은 승려들이 향후 고려의 건국과 왕권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왕권과 불교계의 밀착은 광종대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광종 10년(958) 과거제도를 실시하면서 僧科를 통해 승려를 선발하였고, 歸法寺를 비롯한 다수의 사찰을 창건하였으며,

<sup>39</sup> 김두진,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일조각, 2016), pp. 57-58.

<sup>40</sup> 신라의 국경지방에 세워진 진흥왕 순수비는 마우리아 제국의 국경지방에 세워졌던 아쇼카왕의 14장 마애법칙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세원, 「전륜성왕의 개념형성과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17 (2008), pp. 194-196 참고.

<sup>41</sup> 『三國遺事』 권 4 遼東城育王塔條; 『三國遺事』 권 3 法王禁殺條.

<sup>42</sup> “至貞明元年春大師遽携禪衆來至 帝鄉依前命南山實際寺安之此寺則先是 聖上以黃閣龍禪局附鳳尋付大師永爲禪宇”, 『太子寺郎空大師碑』,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太祖開大師緇林拔萃覺樹慧柯 制曰既幼年之表異號聖沙彌宜今日之標奇稱別和尚”,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sup>43</sup> 金杜珍, 「王建의 僧侶結合과 그 意圖」, 『韓國學論叢』 4 (1982), pp. 131-133.

여러 차례 불교행사를 벌였다. 광종이 과거제도를 통해 후백제 출신 세력을 등용하고 중앙호족 세력을 견제하였으며, 동시에 성상유희사상을 성립시킨 均如(923~973)를 지원함으로써 법상종을 통치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는 바이다.<sup>44</sup>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조성 또한 이러한 사상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법상종은 유식학에 기반한 종파이므로 미륵상생신앙을 표방하지만, 애초에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元曉(617~686)는 『彌勒上生經宗要』에서 “상생경은 菩薩藏에 속하고 하생경은 聲聞藏에 속한다. 그렇기에 성불경은 장아함경에 수록되어있고, 이에 문장의 깊고 얕음이 하생경과 다르지 않다. 小乘의 과를 증득할 뿐인 하생경은 보살장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옷을 짓는 데 짧은 바늘이 필요하고 긴 창이 있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으며, 비를 피할 때에는 작은 우산이 필요하고 온 하늘을 덮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작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니, 그 근성을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다 보배이니라”라고 논한다.<sup>45</sup> 즉 중생의根氣에 따라 신앙의 방편이 달라질 뿐,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의 공존은 무리가 아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륵하생신앙은 고려후기에 유행한 것으로 일컬어지지만, 고려전기에도 충분히 대중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世宗實錄』에는 세종 4년(1422), 成均直講 權克和가 나주군수로 있던 시절 발견했던 고려전기의 매향비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실록에 따르면 권극화가 소금 생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나주 팔함도를 방문하였는데, 그 때 풀숲에서 발견한 작은 비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統和 20년에 중과 俗人의 香徒 3백여 인이 沈水香을 만드는 일로 衝見 정남방 百步 지점에 있었는데, 그 기간은 百年까지라.”<sup>46</sup>

통화 20년은 목종 5년(1002)으로, 고려후기 못지않게 고려전기에도 미륵하생신앙 기반의 대

44 金南允, 「고려중기 불교와 法相宗」, 『韓國史論』 28 (1992), pp. 138-139; 金杜珍, 「高麗初의 法相宗과 그 思想」, 『高麗初期佛敎史論』 (민족사, 1986), pp. 258-259; 이광섭, 「高麗 光宗代 灌燭寺의 創建과 地方支配」, 『史林』 50 (2014), pp. 162-173.

45 “上生經者菩薩藏攝義如前說 餘二經者聲聞藏收, 所以然者 其成佛經出長阿下生經文深淺不異. 又說成道未明應現依經得益證小乘果以之故知非菩薩藏, 然縫衣之時短針爲要雖有長戟而無所画像用, 避雨之日小蓋是用普天雖覆而無所救, 是故不可以小爲輕隨其根性大小皆珍者也” 元曉, 『彌勒上生經宗要』 (T1773).

46 “太上王遣成均直講權克和, 掘沈香于羅州 八款島. 先是, 克和倅羅州時, 因察鹽盆到八款島, 見短碣在草莽間, 其銘略曰: ‘統和二十年, 道俗香徒三百餘人, 爲沈水香事, 在衝見正南百步, 限百年.’ 克和寫其文以進, 故遺之, 竟不得而還” 『世宗實錄』卷15 世宗4年 2月 29日 丙辰條.

규모 매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 후쿠오카 東長寺에는 고려전기의 청주 호장 李英位가 발원한 『佛說彌勒成佛經』 사경이 전해진다. 이 사경의 발원문에는 발원의 일시를 “時 乙卯五月 日”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정확한 제작시기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발원자의 관등성명을 먼저 기록한 후 본문을 “聖壽天長”으로 시작하는 발원문의 양식, 발원자인 이영위의 품계, ‘靑州官內懷仁縣’이라는 지명의 표현 등으로 미루어보아, 앞서 언급한 을묘년은 고려 현종 6년(1015)으로 판단된다.<sup>47</sup>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고려전기에도 미륵하생신앙과 『성불경』은 충분히 대중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광종의 신앙은 후일 ‘酷信’으로까지 일컬어지며 비판을 받는데, 이는 광종의 불교관련 행적의 대부분이 호족을 대상으로 한 숙청기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高麗史』 및 『高麗史節要』에 따르면 재위 초기의 광종은 “항상 『貞觀政要』를 읽고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거의 태평의 정치를 이루었는데” 통치 중반기 이후로는 “참소와 奸邪를 믿어” 죄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고, 그 죄업을 제거하기 위해 비로자나 참회법 및 무차수륙회의 진설, 승려 및 걸인 공양, 불경의 강연, 살생 금지 등의 불교 관련 행적을 보였다.<sup>48</sup> 특기할 것은 중반기 이후 행적의 대부분이 전륜성왕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불살생은 아쇼카왕이나 梁武帝 등 전륜성왕을 표방한 국왕들이 반드시 보이는 행적으로, 광종의 전륜성왕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개혁과 숙청 이후 광종의 불교 관련 활동을 전륜성왕과 결부하여 본다면, 최승로나 『고려사』가 견지한 광종에 대한 유교적 평가, 즉 참소를 믿어 수많은 이를 살상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를 누워친 왕이라는 시각과는 다른 관점이 가능해진다. 전륜성왕이 미륵과 함께 정법으로 치세하기 위한 전제가 방해세력의 진압임을 감안한다면, 광종 10년부터 시작된 개혁과 숙청, 광종 19년의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조성, 그 후의 수많은 사찰 조성과 불교의례의 진설 등은 전륜성왕과 미륵하생신앙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9</sup> 전륜성왕인 양거왕의 행동을 계기로 미륵이 발심하고, 성도 후 가섭으로부터 석가불의 가사를 전달받으며, 양거왕의 귀의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성불경』은 광종에게 전륜성왕 역할의 참고서가 되었을 법하다. 이러한 맥락에

47 권희경, 『고려의 사경』(글고운, 2006), pp. 58-61.

48 『高麗史節要』 권 2 光宗大成大王; 『高麗史』 권 2 世家 광종 25년 및 권 93 崔承老傳.

49 관촉사 상을 조성하게 된 계기, 즉 ‘땅에서 바위가 솟아나온’ 神異는 광종 19년(968)에 일어났고, 그 2년 후에 조성이 시작되었다. 상의 실질적인 조성은 970년부터이지만, 광종이 조성을 결심한 것은 968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968년은 광종의 불교계 측근이던 균여가 참소를 당해 법상종의 세력이 위축된 해였다. 이 상황에서의 관촉사 창건과 관촉사 상 조성을 광종이 위축된 법상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이 광설, 앞의 글 참조.

서 경전에 수록된 ‘계축전의의 장면이 부처의 大衣를 걸치고 석조 보개를 얹은 보관을 착용한 미륵보살입상의 도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 V. 맺음말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광종이라는 명과 암이 뚜렷한 고려전기의 위정자에 의해 조성되었다. 거대한 화강암 세 덩어리를 각기 조각하여 18.12미터의 상으로 세우기 위해 개경에서만 100여명의 匠인이 파견되었고, 상을 옮기는 데 1,0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상이 조성되는 37년 동안 현지에서 조달된 노동력은 그를 훨씬 뛰어넘었을 것이다. 20여년에 걸친 경주의 석굴암 조영보다도 오랜 시간을 들여 완성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불상의 조성이 아닌 광종의 정치생명을 건 대업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완성된 상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도상이라면, 그 연원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연구를 시작한 계기였다.

관촉사 상에 보이는 여러 특징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중의 석조보개는 의외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표현되어 온 전통적인 양식이었다. 다만 관촉사 상 정도의 규모로 화강암제 불상이 외부공간에 단독 조성된 선례가 없었기에, 재료의 물성에 맞춘 표현의 번안이 낮설게 보였던 것이다. 부처의 가사를 걸친 미륵보살입상의 도상 또한 해주 영파리 상 등 우전 왕식 대의 표현의 보살입상에서 먼저 나타난다. 관촉사 상의 도상이 홀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우리나라 불교조각의 맥락을 분명히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관촉사 상을 통해 두드러지는 점은, 그 도상의 근거로 판단되는 『불설미륵대성불경』과 미륵하생신앙이 암시하는 전륜성왕으로서의 광종의 모습이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전하는 광종은 초기에는 바람직한 유교군주로 군림했으나, 귀화인 雙冀와 함께 무리한 개혁정책을 펼치고 잔혹한 숙청을 감행한 후 이에 대한 죄업을 불교적 행보로 씻고자 한, 결과적으로 실패한 국왕이었다. 그러나 광종 재위기 전반에 걸친 그의 친불교적 업적과 미륵하생신앙에 기반한 대규모의 불사 진행, 관촉사 상의 건립 이후 한층 두드러지는 불교 관련 행적은 불교국가로 출발한 고려에서 자신을 전륜성왕의 입지에 두고 미륵이 하생한 용화세계에서 정법으로 국가를 다스리고자 했던 의지를 드러낸다. 관촉사 상은 그와 같은 의지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장치였던 것이다.

석조보개와 대의를 착용한 미륵보살입상의 도상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조성되며, 후에는 더욱 단순화된 民佛의 형태로도 널리 제작된다. 한편, 고려전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야외 공간의 거석불은 결과적으로 野壇法席의 시초가 되어, 이전 시기와는 다른 신앙 형태를 이끌어

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관촉사 상은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도상과 신앙 형태 모두에 있어 대중화를 초래한 셈이다.

미륵은 미술사와 정치사, 사상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독특한 존상이지만, 그만큼 연구의 범위가 넓어 하나로 수렴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고려전기에 있어 미륵존상은 빠뜨릴 수 없는 주요 연구대상이나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본고에서는 불상의 치밀한 비교연구를 하지 못했다. 특히 보살상만큼이나 다수 조성된 고려전기 미륵불입상은 교통로의 정비와 역원의 설치 등 국가적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하며, 후삼국 시기 석조불상과의 관련성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충하기로 다짐하며 글을 맺는다.

**\*주제어(key words)** 미륵보살입상(彌勒菩薩立像, standing Bodhisattva Maitreya), 관촉사(灌燭寺, Gwanchoksa Temple), 보개(寶蓋, chattra), 계족전의(鷄足傳衣, handing over the samghati of Buddha at Kukkutapāda-giri), 불설미륵대성불경(佛說彌勒大成佛經, *Foshuo mile dachengfo jing*), 전륜성왕(轉輪聖王, Chakravartin), 고려 광종(高麗光宗, King Gwangjong of Goryeo)

■ 투고일 2017년 12월 05일 | 심사개시일 2017년 12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8년 1월 24일 ■

## 참고문헌

### 1. 사료 및 경전

- 『1872年 地方地圖』  
『高麗史』  
『大方廣佛華嚴經』, T0293  
『大方便佛報恩經』, T0156  
『東文選』  
『東師列傳』  
『牧隱集』  
『彌勒上生經宗要』, T1773  
『新增東國輿地勝覽』  
『梵宇攷』  
『不空羅索神變真言經』, T1092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T0452  
『佛說彌勒大成佛經』, T0456  
『佛說彌勒下生經』, T0453  
『佛說彌勒下生成佛經』, T0454  
『三國遺事』  
『世宗實錄』  
『五佛頂三昧陀羅尼經』, T0952  
『朝鮮佛教通史』  
『後漢書』

### 2. 한국어 문헌

- 關野貞, 沈雨晟 역, 『조선미술사』, 東文選, 2003.  
국립중앙박물관, 『우리건관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2014.  
\_\_\_\_\_, 『고대불교조각대전』, 2015.  
권희경, 『고려의 사경』, 글고운, 2006.  
김갑동,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金吉雄, 「高麗 巨石佛 造成에 관한 考察」,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 通文館, 1988.  
金南允, 「고려중기 불교와 法相宗」, 『韓國史論』28, 1992.

- 金杜珍, 「王建的僧侶結合과 그 意圖」, 『韓國學論叢』4, 1982.
- \_\_\_\_\_, 「高麗初의 法相宗과 그 思想」, 『高麗初期佛敎史論』, 민족사, 1986.
- \_\_\_\_\_,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 일조각, 2016.
- 金理那, 「高麗時代 石造佛像 研究」, 『考古美術』166·167, 1985. 9.
- 문명대, 「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 孫永文, 「高麗時代 龍華手印 彌勒圖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252, 2006. 12.
- 신은영,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의 圖像-尊名불일치 문제와 ‘世間」, 『史學研究』117, 2015. 3.
- 嚴基杓, 「新羅末 高麗初 石造浮屠에 반영에 木造建築 要素 연구」, 『문화사학』31, 2009. 6.
- 윤세원, 「전륜성왕의 개념형성과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17, 2008.
- 이광섭, 「高麗 光宗代 灌燭寺의 創建과 地方支配」, 『史林』50, 2014.
- 임영애, 「優填王式 불입상의 형성·복제 그리고 확산」, 『美術史論壇』34, 2012. 6.
- 정명희, 「朝鮮 後期 掛佛幀의 研究」, 『美術史學研究』242·243, 2004. 3.
- 丁棧權, 「安城 梅山里 石佛 立像 研究 - 高麗 光宗代 造成說을 제기하며」, 『文化史學』17, 2002. 6.
- \_\_\_\_\_, 「태봉과 고려 석조미술로 보는 역사」, 학연문화사, 2015.
- 정요근, 「高麗前期 驛制의 整備와 22驛道」, 『韓國史論』45, 2001.
- 曹宰榮, 「灌燭寺·大鳥寺 石造菩薩立像의 尊名研究: 高麗 前期 佛敎界의 흐름과 관련하여」, 『佛敎考古學』3, 2003.
- \_\_\_\_\_, 「高麗前期 石造觀音菩薩像 圖像研究」, 『佛敎考古學』5, 2005.
- 智冠 編, 『伽山佛敎大辭林』1,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8.
- 陳政煥, 「高麗前期 新樣式 石佛의 展開와 造成背景」, 『美術史學研究』287, 2015. 9.
- 崔善柱, 「高麗初期 灌燭寺 石造菩薩立像에 대한 研究」, 『미술사연구』14, 2000.
- 崔聖銀, 「百濟地域의 後期彫刻에 대한 考察」, 『百濟의 彫刻과 美術』, 公州大學校 博物館·忠清南道, 1992.
- \_\_\_\_\_,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 최유진, 「원효의 미륵사상에 대하여」, 『종교연구』20, 2000. 6.
- 黃壽永, 「高麗의 彫刻」, 『韓國藝術總覽 概觀篇』, 大韓民國藝術院, 1964.
- 황이연, 「고려 전기 보살상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2.

### 3. 동양어 문헌

- 宮治昭, 『仏像學入門』, 春秋社, 2013.
- 唐仲明, 「论“响堂样式”的特征及形成」, 『敦煌研究』2015年第5期.
- 大西磨希子, 『唐代佛敎美術史論 一 仏敎文化の伝播と日唐交流一』, 法蔵館, 2017.
- 渡辺照宏, 『愛と平和の象徴·弥勒経』, 筑摩書房, 1975.
- 東京国立博物館·朝日新聞社, 『中国国宝展』, 朝日新聞社, 2004.

- 東京国立博物館・NHK,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NHK, 1998.
- 藤井佐美, 『説経才学抄』の莊嚴説話: 幡・宝蓋・花鬘を中心に, 『立命館文学』 630, 2013.
- 马炜, 『西域绘画: 佛・菩萨』, 重庆出版社, 2010.
- 小杉一雄, 『中国仏教美術史の研究』, 新樹社, 1980.
- 水野清一・長廣敏雄, 『河北磁縣・河南武安: 響堂山石窟: 河北河南省境における北齊時代の石窟寺院』, 東方文化學院京都研究所, 1937.
- 龙忠, 『弥勒大佛造型特征研究』, 『遗产与保护研究』2017年05期.
- 张同标, 『早期印度佛教美术的华盖图像及其在中国的传播』, 『藝術探索』 29卷5期, 2015. 12.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915.
-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中国美术全集 雕塑编 7 敦煌彩塑』, 人民美术出版社, 1989.
- \_\_\_\_\_, 『中国美术全集 雕塑编 10 云冈石窟雕刻』, 人民美术出版社, 1993.
- 仲嶺真信, 『一いわゆる天蓋についての再検討—仏教美術における華蓋を中心にして—』, 『芸術学論叢』 17, 2007.
- 町田甲一, 『大和古寺巡歴』, 講談社学術文庫, 1989.
- 中村元 외, 『仏教美術辞典』, 東京書籍, 2002.

#### 4. 서양어 문헌

- Brinker, Helmut. *Secrets of the Sacred: Empowering Buddhist Images in Clear, in Code, and in Cache*,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2011.
- Carter, Martha. "The Mystery of the Udayana Buddha." *Annali*, Supplemento no.64, Vol. 50, 1990.

#### 5.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https://abc.dongguk.edu/ebti/c2/sub1.jsp>)
-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 Cornell University Library Digital Collections(<https://digital.library.cornell.edu>)

## 국문초록

고려전기의 미륵보살입상은 타 시기 및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려의 독자적인 도상이다. 현재 알려진 17구의 미륵보살입상은 고려 초부터 간선로망 부근에 조성되는데, 본고에서는 그중에서도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도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촉사 상에서 두드러지는 양식적 특징은 석조 보개와 대의 착용이다.

보개는 이른 시기부터 불정을 보호하는 장치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불교미술에서는 불교의 전통과 별개로 노자나 황제 등의 존상을 모시는 화계에 불상을 안치하는데, 이 때 나타나는 초기 화계의 표현이 불교적 표현과 결합하여 발전한다. 이중 구조, 정상부의 화염보주, 보개 가장자리의 垂飾 등은 고대 건축물의 지붕에서도 보이는 양식으로, 唐과 통일신라 불교미술에서도 다수 나타난다. 관촉사 상에 표현된 석조 보개는 18.12미터의 거석블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표현을 환조의 화강암으로 변안한 결과이며, 여타 고려전기 상에 보이는 석조보개는 이와 같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관촉사 상을 모방하여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미륵보살의 대의 착용 도상은 해주 영파리 석조보살입상 등 우전왕식 대의를 걸친 보살상을 통해 이른 시기부터 조성되었다. 이 도상은 『불설미륵대성불경』에 전하는 ‘鷄足傳衣’에 의거하여 ‘석가모니의 대의를 전달받는 미륵보살’이 표현된 것이다. 『불설미륵대성불경』은 여타 미륵하생신앙 경전보다 분량 면에서 앞서서 만큼 서술이 자세한데, 특히 전륜성왕인 양거왕과 미륵의 인연을 다룬 내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전륜성왕의 역할을 강조하는 『불설미륵대성불경』에 기반을 둔 거석블의 조성은 광종이 전륜성왕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역사에 등장하는 전륜성왕은 대부분 정법에 의한 치세 이전에 무력을 사용하여 정적을 제압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광종이 측근들을 잔혹하게 숙청한 후 불교에 의지하여 참회하려 한 실패한 위정자였다는 조선시대 이래의 인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 대신 친불교적이었던 그의 일련의 행보가 개혁과 미륵하생 도상의 거석블 조성, 불살생과 불교의례 진설 등 전륜성왕을 염두에 둔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Abstract**

## **An Iconographic Study on the Stone Standing Bodhisattva Maitreya of Gwanchoksa Temple**

**Hwang, Yee yeon\***

Standing Bodhisattva Maitreya of Early Goryeo Dynasty(918-1170) is a unique icon of Goryeo Buddhist sculpture. Among the presently known 17 examples of this iconography, which are founded close to artery road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one Standing Bodhisattva Maitreya of Gwanchoksa Temple. The striking feature of this well-known statue is the wearing of stone chattra and samghati.

Chattras appear as the protection for the Buddha's uṣṇīṣa from the early stage of the Buddhist art history in India. Meanwhile, the tradition of canopy expression used for the enshrinement of the statues of Laozi or Huangdi combines with the Buddhist art in China. The double structure, the fire orb decorated on top and the decorations suspended from the edge of chattra, all seen in the Gwanchoksa Temple image, can be found not only in the Buddhist art of Tang or Silla but also in the ancient architecture. Accordingly, the unique stone chattra of Gwanchoksa Temple image is actually an adaptation of the traditional style; the gigantic size of 18.12 meters high and the properties of granite resulted in a new look. This chattra is considered to be the reference for Goryeo stone statues with chattras on, since the decorative traditions cannot be found in other images.

---

\* Hongik University

On the other hand, the iconography of Bodhisattva Maitreya wearing samghati, such as the Stone Standing Bodhisattva in Yeongpa-ri, Haeju, appears from the early Goryeo. It is an imagification of Bodhisattva Maitreya being given the samghati of the Buddha Shakyamuni, according to the episode included in the *Foshuo mile dachengfo jing* (佛說彌勒大成佛經, hereafter the *Chengfo jing*). Compared to the other sūtras of the descending Maitreya belief, the lengthy *Chengfo jing* elaborately describ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Maitreya and the King Rangqu, the Chakravartin of Maitreya's time. The founding of gigantic statue based upon the *Chengfo jing*, the sutra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Chakravartin, suggests that King Gwangjong (r. 949-975) intended to display his political power.

Most of the Chakravartins in history purge the opposition forces prior to their ethical and benevolent rulings. That said, the evaluation of King Gwangjong by the Confucianists of Joseon Dynasty – a failed king who tried to repent his fault of the cruel purge by the religious actions – has to be reviewed. Instead, the king's pro-Buddhist activities, including the foundation of Maitreya icon, the proclamation of ahimsa and arrangement of various Buddhist rites, need to be considered as his intentions to be a Chakravartin.